

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168개의 우수특허기술이 한자리에



사 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기술들의 모인인 「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가 특허청 주최, 우리회 주관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 인도양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어려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중소기업, 개인 등에게 기술이전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회는 각 우수기술의 이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 한국기술거래소 ·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한국특허정보원 등 국내 유수의 기술거래 유관기관과 협조, 박람회 내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특허기술지원관을 설치하였다.

특허기술지원관을 통해 우리회는 자금, 기술정보, 기술평가, 경영지도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1. 우리회 오승택 혁신기획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3. 김종갑 특허청장과 박상원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및 내빈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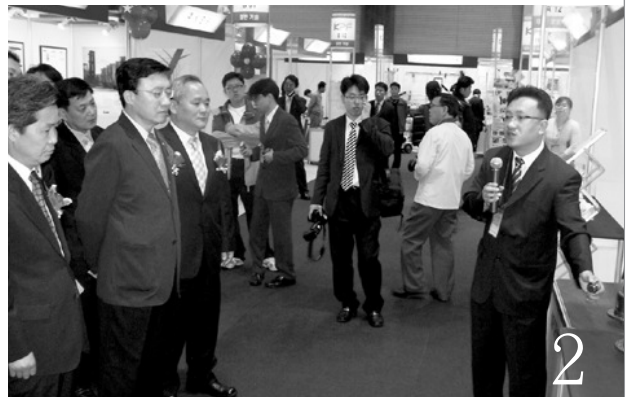
이전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전시장은 크게 특허기술이전관, 우수발명 시작품관, 특허기술지원관, 특허기술소개마당, 무료상담코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허기술이전관의 경우 공공기술이전관과 일반기술이전관으로 이루어져 100 여 개가 넘는 특허기술이 전시되었다.

지원관에서는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기술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내용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 밖에도 특허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품된 156개 기술 중 앞으로 선발 될 40개의 우수기술에 기술세일즈 및 타겟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기술이전 마케팅으로 통칭되는 이 지원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고급기술을 선발해 기술개요서, 기술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기술세일즈 자료를 무료로 제작 지원한다.

특허기술이전박람회는 2003년 처음 개최되어 2005년까지 약 700 여 개의 우수특허기술을 발굴, 약 1,700건의 기술이전 상담 및 32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술금융지원단 발족
특허담보 · 신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오 리회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한국 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과 우리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한은행 (이하 “민간금융기관”이라 함) · 기술보증기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기술거래소 · 한국산업은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기술금융지원단”이라 함)과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기술평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이 출시한 기술금융 관련 상품을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하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기술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협약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금융시스템에서 기술력 기반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술금융이란, 기술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의 한 분야
- ※ 기술금융지원단이란, 기술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 협약에 참여하는 특허청 지정 발명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본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금융지원단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력 위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 의사 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물적담보 요구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협약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적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물 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거의가 합성물감이다. 이것은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석탄타르의 성분을 연구중에 그의 조수인 퍼킨이 보조연구를 하면서 발명한 것이다.

퍼킨의 물감이 발명되기 전에는 식물이나 동물 등에서 물감을 얻어내 염색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천연염료는 뽑이내기가 어렵고 값이 비쌌다. 런던의 왕립 화학대학 교수인 호프만의 실험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헨리 퍼킨이 있었는데 17세로 가장 어렸으나 실험에 열중이었다. 호프만은 말라리아 특효약인 키니네를 합성하려 했는데 그 실험을 권유받은 퍼킨은 약품 조합을 실험하다 검은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침전물을 알코올에 녹이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물감을 연구 '모베인' 이라는 물감을 발명했다. <王>

제17회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산업기술 및 디자인 전시회 성료

금상 3점, 은상 6점, 동상 5점 등 19점 수상



U 리나라 발명가들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7회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산업기술 및 디자인 전시회에서 금상 3점, 은상 6점, 동상 5점 등 총 19점의 수상을 냈다.

금상 수상작은 최재호의「누름에 의해 이동되는 작업대」, 임지선의「아이젠이 구비

된 목발」, 최영철의「샤워기 헤드」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최영철의「샤워기 헤드」는 금상과 함께 특별상도 동시에 수상했다. 또 은상에는 임서환의「막대자가 부설된 각도기」, 양수영의「인체의 정전기를 감지하여 정지하는 선풍기」, 최형락의「스토핑 기능을 가진 핀셋」, 이문수의「경첩」, 김영호의「과일 포장구」, 최영철의「은폼 스킨 소

1. 우리회 백인홍 경영지원팀장이 주최측(MINDS)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2. 관람객들이 전시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프트너」등이 수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란, 스리랑카, 대만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321점이 출품되었으며, 이란 35점, 스리랑카 2점, 대만 2점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

수상현황	권리자명	출품 명의	권리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금상	최재호	개인	특출 2006-6528	누름에 의해 이동되는 작업대
	임지선	개인	실출 2005-8752	아이젠이 구비된 목발
금상, 특별상	최영철	개인	실용 제336396호	샤워기 헤드
	임서환	개인	실용 제387604호	막대자가 부설된 각도기
은상	양수영	개인	특출 2006-32155	인체의 정전기를 감지하여 정지하는 선풍기
	최형락	개인	실용 제354086호	스토핑 기능을 가진 핀셋
	이문수	개인	실용 제393994호	경첩
	김영호	개인	실용 제405782호	과일 포장구
	최영철	개인	실용 제353586호	은폼 스킨 소프트너
동상	임지선	개인	특출 2006-31603	이젤 기능을 갖는 책상
	최재호	개인	실출 2006-1888	집계의 장력을 조절 가능한 집계형 가위
	임세열	개인	특출 2006-981	옷걸이가 구비된 의자
	최형락	개인	특출 2006-30294	베개의 휨을 감지하여 점등되는 전등
	곽형주	개인	실출 2005-36588	간이식 청소기
장려상	임세열	개인	실출 2006-391	3면 사용가능한 대걸레
	임서환	개인	실출 2003-2813	자루걸레용 받침구조
	양수영	개인	특출 2006-30296	화분용 전방향 햇빛 공급장치
	곽형주	개인	실출 2006-9854	휴대폰용 충전장치
	김영호	개인	실출 2006-7181	냄비뚜껑용 슬라이딩 거치대

우리회, 연예인 축구단「일레븐」과 친선경기

5월 발명의 달 행사 일환



U 리회는 지난 5월 14일 오전 10시 정 부대전청사 축구장에서 이덕화, 최수종, 박상면 등 인기연예인 30명으로 구성된「일레븐」과 발명 축구시합을 가졌다.

이번 발명 축구시합은 특허청이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연예인 축구단인「일레븐」을 초청한 행사로써, 범국민적 발명의 식고취와 발명 장려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월드컵 분위기와 맞물려 축구와 발명의 접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발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출전한 팀은 연예인 축구팀을 비롯 특허청, 우리회, 한국특허정보원이었으며, 승패에 관계없는 친선경기로 치러졌다.

